

##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온 성 숙\* · 이 전 숙\*\*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Effect of Education on the Attitude of Home Life for the Boys' in Middle School

On, Seong-Sook\* · Rhie, Jeon-Sook\*\*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central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of the boy students in middle school the attitude towards house life and house-hold affairs of the boys ; and explain what will be of their attitude after they have got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3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boy students who had educated Home Economics in school and the ones who had no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educated group has higher score in ability of house-hold making than the other group.
2. The educated students responed affirmatively to the utility and necessit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 The teachers who have taught Home Economics to male students have opinions that the students needed Home Economics education to increase the ability of doing house-hold work.

Accordingly,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taught to both sexes in order to have good quality of life, and requires more hours to study as well.

#### I. 序 論

오늘날 현대의 사회구조는 산업의 발달로 핵가족

화 되고 있다. 이는 家族의 구조와 기능 및 家族구성원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장 진출의 증가로 인해 家庭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분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sup>1)</sup>

현재의 우리나라의 家族문화는 관념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서구화 되었으나 행동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한국적인 특색이 강하게 남아 있다<sup>2)</sup>.

이것은 회람의 과학정신과 기독교 가치관 밑에서 몇 백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서구사회와는 달리 봉건사회의 유교적 문화풍토에서 여자의 생활은 동양전래의 내외관에 의하여,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되었고, 男尊女卑의 思想이 사회를 지배 하였던 우리는 불과 몇 십년 동안에 급속한 技術경제의 발전을 해왔고, 이런현상은 결국 다른 사회문화의 발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家庭生活와 社會生活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sup>3)</sup>.

미국 사회의 젊은 夫婦들은 가사의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로 공동으로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는 최근 급진적인 공업화, 산업화로 여성인력의 사회적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은 이중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금까지 남성은 대체로 아들로서 孝의 교육만을 받아왔을 뿐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教育받을 기회가 없었고 學校教育에서 까지도 남학생에게는 家政科教育을 접할 기회가 차단 되었었기 때문에 家庭生活에 대한 책임감이나 家事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sup>5)</sup>.

1980년대에 이르러 開化思想의 영향으로 여성教育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기독교 여선교사들에 의해 제도화 된 學校教育으로 처음 家政科教育이 실시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第1次 教育課程(1955年)부터 第4次 教育課程(1988年)까지 實業·家政教科名으로 家政을 여학생에게만 실시하여 왔다. 1987년에 개정 공포되어 1989學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 第5次 中學校 教育課程은 기존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履修에서 탈피하여 남·녀가 모두 공통적으로 履修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技術·家政教科目을 신설하여서 技術, 家政 및 技術·家政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履修하고 있고 第6次 教育課程인 1995學년도 부터 남·녀학생 供히 家政을 실시하고자 검토하고 있다<sup>6)</sup>.

최근 家事의 기계화, 주택구조의 변화, 일상용품의 상품화는 남성들도 쉽게 家事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었다. 따라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자도 家庭을 이끌어 가는 家族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남학생도 家政을 배워야

하며 이는 많은 연구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sup>7)~12)</sup>.

최근 技術·家政을 통해 家政教科를 배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申<sup>13)</sup>의 연구의 결과 家政科를 履修한 남학생들은 대부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과반수가 家政科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에게 家政教科를 履修케 함으로써, 家事작업에 대한 태도와 흥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技術·家政을 통해 家政教科를 履修한 남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家庭生活 및 家事勞動에 대한 태도가 家政교과를 履修 하지않은 학생들과 다를 것으로 사료되어 家政教科의 학습효과가 남학생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家政教科의 남녀 공통이수에 대비하여 적절한 教育課程 작성에 참고가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家政科教育과 家庭生活

家政科教育은 家庭生活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家庭과 社會의 일원으로써 바람직한 자질을 양성하는 전인적인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가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을 기르는 生活教育이다<sup>14)</sup>.

家政科教育의 성격을 보면 家庭生活을 중심으로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教科이며, 사회환경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家庭生活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서 가정생활 영위에 필요한 능력과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松木<sup>16)</sup>는 “家政科教育은 특정한 성별, 직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어떠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알고 있지않으면 안되는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키는 교과로서 민주적인 家庭의 경영으로 민주적인 사회의 건설에 결함없는 교육이다.”고 하였으며 또한 “家庭生活을 통하여 인간의 생활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며, 家庭生活 그 자체를 교재로 하는 것이고 인간존중과 생활 중심의 의식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와같은 家政科教育의 특징들을 보면 인간생활의 행복과 家庭生活의 질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간생활의 행복과 家庭生活의 질

적발전을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원 모두의 자질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家政科教育은 학생생활에까지 연장되어 실천함은 물론 앞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家庭生活에까지 활용되어 생활화 됨으로써 비로소 그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래서 家政科教育이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家庭,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家庭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家庭의 생활개선을 할 수 있는 家政科教育이 되어야 한다.

鄭<sup>18)</sup>은 家政學의 관점에서는 家事勞動이란 인간의 家庭生活에서 필수 불가결한 노동이므로 가족원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것이 용이 하지 않을 때에는 家事勞動에 흥미를 느끼는 누군가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家事勞動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고 정신적 사고의 면을 중요시하여 가족관계, 家庭경영등 정신적 교육 분야가 남·녀 모두에게 공통영역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奧村<sup>19)</sup>은 家事勞動 教育의 제안으로 國民學校에서는 家事勞動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붙이며, 中學校는 동작의 과학성을 몸에 붙이며, 高等學校에서는 家事의 사회화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金<sup>20)</sup>은 행복한 家庭을 이루기 위해 “家政科教育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교육되어야 하고, 성역할에 구애 받지 말고 가족구성원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즐겁게 家事勞動에 참여할 수 있게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사회변화 중의 가장 큰 변화는 家庭내의 역할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의 家庭生活에 닥쳐올 변화에 대비하여 남·녀 모두에게 공통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인이 되는 준비로서 또 행복을 바라는 인생의 기반인 家庭生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성차별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남·녀 불평등적인 제도와 내용을 먼저 제거하고 是正의 방향으로 공통 인식을 탐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Ⅲ. 研究內容 및 研究方法

#### 1. 研究 內容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 ①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이 인지한 가정교과의 실생활 도움정도.
- ②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가정교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차이.
- ③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가사노동 수행능력과 가사노동 수행태도의 차이.
- ④ 교사들이 인지한 남학생들에 대한 가정과 교육에 대한 견해.

#### 2. 研究 方法

##### 1) 研究對象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技術·家政교과의 家政과목을 2년 동안 이수한 中學校 6개교에서 1반씩 선정된 3학년 남학생 250명과 家政을 이수하지 않은 中學校 6개교에서 1반씩 선정된 3학년 남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 전라북도내에서 技術·家政을 가르치고 있는 22개 학교 중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남학생에게 家政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 설문지 1부씩을 우송, 회수하여 조사하였다.

##### 2) 研究의 道具

###### (1) 설문지 1

본 연구에 사용 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설정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일반사항 2문항, 家政科教育에 대하여 56문항, 家事勞動 수행 능력 및 태도 80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설문지 2

설문지 2는 교사용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문항구성은 일반사항 2문항, 家政科教育에 대한 56문항, 총 58문항이었다.

##### 3) 研究 節次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내용의 진술을 위하여 선행 연구 논문<sup>20)~23)</sup>과 중학교의 技術·家政 교과서<sup>24), 25)</sup>

등을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친후 수정·보완하여 1992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용 설문지는 家政教科 이수 학생 250부, 비이수 학생 250부를 배부하여 각 250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家政教科 이수 학생 238부, 비이수 학생 240부를 자료처리로 이용하였다.

3. 資料의 處理 및 分析 方法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처리 분석하였다.

설문지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전혀 도움 안 된다 1점, 별로 도움 안된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도움 된다 4점, 대단히 도움된다 5점을 주었다. 배울 필요의 정도는 전혀 배울 필요없다 1점, 별로 배울 필요없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배울 필요있다 4점, 대단히 배울 필요 있다 5점을 주었다. 더 첨가해서 배우고 싶은 정도는 전혀 배울 필요없다 1점, 별로 배울 필요없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배울 필요있다 4점, 대단히 배울 필

요있다 5점을 주었다.

가사노동 내용을 보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1점, 보통이다 2점, 잘할 수 있다 3점, 매우 잘할 수 있다 4점을 주었다.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빈도 및 t-test를 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478명이었으며, 이중 家政教科 履修 학생은 238명(49.8%), 家政教科 非履修 학생은 240명(50.2%)이었고, 어머니의 직업 유·무별로 보면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 333명(69.7%),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 145명(30.3%)였다.

2. 家政教科 이수학생의 家政科教育의 실생활 도움정도 <표 1>

<표 1> 家政教科 履修 집단의 실생활 도움정도(%)

내용	구분	도움 안됨 N(%)	보통임 N(%)	도움 됨 N(%)
1. 가정생활과 기술		23 ( 9.7)	88 (87.1)	126 (53.2)
2. 가족과 가족생활		21 ( 8.9)	56 (23.6)	160 (67.5)
3. 가족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31 (13.1)	90 (38.0)	116 (48.9)
計		25 (10.6)	78 (32.9)	134 (56.5)
4. 건강과 식생활		18 ( 7.6)	52 (21.9)	167 (70.5)
5. 청소년기의 영양		18 ( 7.6)	46 (19.4)	173 (73.0)
6. 식사계획		46 (19.4)	95 (40.1)	96 (40.5)
7. 식품과 위생		22 ( 9.3)	68 (28.7)	147 (62.1)
8. 식품과 조리		41 (17.3)	75 (31.6)	121 (51.1)
9. 가공식품		49 (20.7)	79 (33.3)	109 (45.9)
10. 음식 만들기		34 (14.3)	68 (28.7)	135 (57.0)
計		33 (13.7)	69 (29.1)	135 (57.2)
11. 옷차림		33 (13.9)	68 (28.7)	136 (57.4)
12. 섬유와 옷감		64 (27.0)	91 (38.4)	82 (34.6)
13. 의복계획과 선택		39 (16.5)	87 (36.7)	111 (46.8)
14. 의복 검사하기		45 (18.9)	76 (32.1)	116 (48.9)
15. 의복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79 (33.3)	71 (30.0)	87 (36.8)
計		52 (21.9)	79 (33.2)	106 (44.9)
16. 주거공간의 계획		38 (16.0)	88 (37.1)	111 (46.8)
17. 주거환경과 설비		32 (13.5)	77 (32.5)	128 (54.0)
18. 주거환경의 미화		29 ( 1.2)	81 (32.4)	127 (53.6)
計		32 (13.9)	82 (34.0)	122 (52.1)
總計		35 (15.0)	77 (32.3)	125 (52.7)

〈표 1〉은 가정과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정교과 이수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 1〉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도움되지 않는다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과반수의 학생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내용은 청소년기의 영양(73.0%), 건강과 식생활(70.5%), 가족과 가족생활(67.5%), 식품과 위생(62.1%), 옷차림(57.4%), 음식만들기(57.0%), 주거환경과 설비(54.0%), 주거환경의 미화(53.6%), 가정생활과 기술(53.2%), 식품과 조리(51.1%)이었다.

申<sup>13)</sup>의 연구에서 가정교과 이수남학생이 청소년기의 특징(92.7%), 영양과 건강(91.3%)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가족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의복건사하기 항목은 50%에 가까운 학생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섬유와 옷감, 의복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의 항목은 실생활에 도움된다는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 비율을 보인 것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기계화, 상품의 대량화 등으로 가정에서 간단한 옷만들기와 같은 생산자적 기능이 사회로 이전된 것에 기인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가정교과 이수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sup>20)</sup>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단원은 식생활(57.2%), 가정생활과 자원(56.5%), 주생활(52.1%), 의생활(44.9%)순이었는데, 신<sup>13)</sup>의 연구결과 단원은 식생활(44.8%), 의생활(29.4%)가 정생활과 자원(25.8%)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52.7%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sup>26)</sup>의 연구결과 여학생의 경우 65.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 3. 가정교과 이수여부에 따른 가정교과의 필요성에 따른 견해

〈표 2〉는 가정교과 내용 중 배울 필요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모든 단원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각 단원에 대한 배울필요의 정도는 가정생활과 자원(55.6%), 식생활(53.7%), 주생활(49.6%), 의생활(40.2%) 순이었다.

남학생들의 과반수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家政科教育 내용을 보면 건강과 식생활(73.0%), 청소년기의 영양(66.8%), 가족과 가족생활(65.7%), 식품과 위생(63.2%), 주거위생과 설비(56.9%), 가정생활과 기술(54.4%), 옷차림(51.1%), 음식 만들기(50.4%)이었다.

김<sup>21)</sup>의 연구에 家政教科를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의 家政教科에 대한 배울필요의 정도에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다.

섬유와 옷감은 배울 필요있다고와 배울 필요없다고 두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의복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는 배울 필요없다(48.7%)가 배울 필요있다(28.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섬유와 옷감의 내용은 이론적이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의복구입시 옷감의 섬유 자체 보다는 색,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울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는 남학생들이 바느질 하기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고, 입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흥미를 잃게 되고, 학부모들의 남자가 바느질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家政科教育에 대하여 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고정 관념을 탈피하도록 家政科教育의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家政教科 이수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여유를 가지고 실습함으로써 의복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남학생의 家政科教育의 배울필요의 정도(%)

내용	집단 구분	家政教科 履修			家政教科非履修			총계		
		배울 필요 없다	보통 이다	배울 필요 있다	배울 필요 없다	보통 이다	배울 필요 있다	배울 필요 없다	보통 이다	배울 필요 있다
1. 가정생활과 기술		13.9	37.1	48.9	9.9	30.3	59.8	11.9	33.7	54.4
2. 가족과 가족생활		10.2	27.8	62.0	7.9	22.8	69.3	9.0	25.3	65.7
3. 가족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18.6	37.1	44.3	17.0	34.0	49.0	17.7	35.6	46.7
計		14.2	34.0	51.8	11.5	29.0	59.0	12.9	31.5	55.6
4. 건강과 식생활		11.0	17.3	71.8	4.5	21.2	74.3	7.7	19.2	73.0
5. 청소년기의 영향		11.8	24.1	64.1	8.3	22.4	69.3	10.1	23.2	66.8
6. 식사계획		26.7	38.8	40.5	23.2	39.0	37.7	21.9	38.9	39.1
7. 식품과 위생		14.3	23.6	62.0	12.9	22.8	64.3	13.6	23.2	63.1
8. 식품과 조리		17.3	35.4	47.3	22.4	34.0	43.6	19.8	34.7	45.4
9. 가공식품		22.3	33.3	44.3	25.3	36.5	38.2	23.9	34.9	41.2
10. 음식 만들기		18.6	32.1	49.3	17.9	30.7	51.5	18.2	31.4	50.4
計		17.4	29.2	53.4	16.4	29.5	54.1	16.9	29.4	53.7
11. 옷차림		16.8	32.5	50.6	17.9	30.7	51.5	17.4	31.6	51.1
12. 섬유와 옷감		27.0	33.8	39.3	27.4	36.9	25.7	32.3	35.4	32.5
13. 의복계획과 선택		22.7	35.6	42.2	26.1	26.1	37.8	24.5	35.6	39.9
14. 의복 건사하기		24.5	32.1	43.5	26.5	29.0	44.4	25.5	30.5	44.0
15. 의복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34.6	35.0	30.4	42.7	30.3	26.9	48.7	32.6	28.6
計		25.1	33.7	41.2	28.1	32.6	39.3	26.7	33.1	40.2
16. 주거공간의 계획		23.2	35.9	41.0	22.4	33.6	44.0	22.8	34.7	42.4
17. 주거위생과 설비		14.0	33.3	52.7	14.9	24.1	61.0	14.4	28.7	56.9
18. 주거환경의 미화		16.9	39.7	43.5	13.2	31.5	55.2	15.0	35.6	49.4
計		18.0	36.3	45.7	16.8	29.7	53.5	17.4	33.0	49.6
總計		18.7	33.3	48.0	18.2	30.2	51.6	18.5	31.8	49.7

#### 4. 家政教科 이수여부에 따른 家事勞動 수행능 력과 태도

##### 1) 家政教科 履修·非履修학생의 가사노동 수행 능력의 차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모든 항목에서 가정교과 이수학생집단이 비이수학생 집단보다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18항목중 1항목(가족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을 제외한 17항목 모두 매우 높은 유의 수준으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 家政教科 내

용 전체적으로 이수집단(M=2.77), 비이수집단(M=2.48)로 이수집단이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았다.

고<sup>27)</sup>의 연구에서 家政科教育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家政教科 학습내용을 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수집단이 가정교과 내용을 학습한 결과 비이수집단에 비해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남녀역할의 변화, 의·식·주생활의 기계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은 부부가 함께 집안생활을 위하여 남성이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

〈표 3〉 家政教科 履修·非履修 집단의 가사노동 수행능력(현재 할 수 있는 정도)

내용	집단 M.SD	家政教科 履修		家政教科 非履修		T
		M	SD	M	SD	
1. 가정생활과 기술		2.77	.54	2.58	.62	3.50***
2. 가족과 가족생활		2.77	.56	2.62	.61	2.63**
3. 가족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2.89	.70	2.78	.73	1.74
計		2.81	.50	2.66	.60	3.10**
4. 건강과 식생활		2.70	.75	2.42	.83	3.89***
5. 청소년기의 영양		2.85	.85	2.59	.98	3.09**
6. 식사계획		2.70	.94	2.30	1.02	4.40***
7. 식품과 위생		2.66	.83	2.46	.89	2.50**
8. 식품과 조리		2.65	.92	2.07	.94	6.80***
9. 가공식품		2.69	.94	2.24	1.00	5.06***
10. 음식만들기		2.62	.68	2.29	.77	5.06***
計		2.70	.56	2.34	.66	6.43***
11. 옷차림		2.81	.72	2.67	.77	1.96*
12. 섬유와 옷감		2.67	.68	2.47	.81	2.95**
13. 의복계획과 선택		2.73	.88	2.37	.94	4.24***
14. 의복건사하기		2.69	.64	2.29	.75	6.40***
15. 의복만들기 및 생활용품만들기		2.66	.71	2.23	.81	6.12***
計		2.71	.52	2.41	.59	5.96***
16. 주거공간의 계획		2.78	.59	2.50	.71	4.57***
17. 주거위생과 설비		2.89	.68	2.49	.77	6.13***
18. 주거환경의 미화		2.88	.64	2.65	.72	3.70***
計		2.85	.51	2.55	.61	5.88***
總計		2.77	.42	2.48	.50	6.68***

\* P<.05                      \*\* P<.01                      \*\*\* P<.001

로 家政教科를 이수한 면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볼때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남학생에게도 家政을 필수로 배워야 한다고 사료된다.

2) 家政教科 履修·非履修학생의 가사노동 수행태도의 차이

〈표 4〉는 가정을 이루었을때 가사작업을 아내가 해야 하는 견해는 3점, 부부공동은 2점, 남편이 해야하는 견해는 1점으로 계산한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모든항목에서 가사노동 수행태도가 가정을 이루었을때 家政教科 비이수 학생집단이 家政教科 이수학생 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을 아내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며 이는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체평균 家政教科 이수 집단(M=2.10), 家政教科 비이수집단(M=2.31)의 점수를 볼때에 아직도 가사노동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家政教科 이수 학생 집단은 비이수 학생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을 여자만이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내보다 남편쪽이 해야할 일로 여겨지는 일의 내용은 주거위생과 설비, 주거공간의 계획, 가족과 가족생활, 가정생활과 기술의 순이었다.

동세대적 입장에서 맺어진 부부관계는 기본적인 인권에서 평등해야 하고 가정관리에서 부부의 역할과 책임을 구별하지 말고 적절히 분담 공유하여야

〈표 4〉 家政教科 履修·非履修 집단의 가사노동 수행태도(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사작업 역할분담)

내용	집단	家政教科 履修		家政教科 非履修		T
	M.SD	M	SD	M	SD	
1. 가정생활과 기술		1.99	.31	2.01	.29	-.77
2. 가족과 가족생활		1.96	.34	2.06	.37	-3.28***
3. 가족자원의 활용과 소비생활		2.08	.59	2.27	.54	-3.72***
計		2.01	.27	2.12	.27	-4.33***
4. 건강과 식생활		2.30	.58	2.64	.49	-6.96***
5. 청소년기의 영양		2.27	.69	2.54	.62	-4.54***
6. 식사계획		2.28	.72	2.66	.57	-6.51***
7. 식품과 위생		2.25	.69	2.59	.61	-5.67***
8. 식품과 조리		2.36	.72	2.78	.49	-7.50***
9. 가공식품		2.30	.69	2.63	.58	-5.67***
10. 음식만들기		2.26	.52	2.64	.44	-8.60***
計		2.29	.43	2.64	.34	-10.02***
11. 옷차림		2.15	.47	2.28	.48	-3.68**
12. 섬유와 옷감		2.25	.52	2.49	.48	-5.19***
13. 의복계획과 선택		2.25	.65	2.44	.63	-3.25***
14. 의복건사하기		2.23	.54	2.61	.42	-8.72***
15. 의복만들기 및 생활용품만들기		2.23	.54	2.54	.54	-6.16***
計		2.22	.36	2.47	.35	-7.69***
16. 주거공간의 계획		1.85	.40	1.95	.44	-2.56***
17. 주거위생과 설비		1.79	.53	1.93	.59	-2.63***
18. 주거환경의 미화		2.01	.38	2.15	.39	-3.89***
計		1.89	.32	2.01	.36	-4.02***
總計		2.10	.23	2.31	.22	-10.28***

\*\* P&lt;.01

\*\*\* P&lt;.001

하며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의하여 미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사노동을 해야만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집단이 비이수학생 집단 보다 유의수준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5. 家政教科를 남학생에게 가르친 교사가 인지한 家政科 教育에 대한 견해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21~30세 9명, 31~40세 7명, 41~50세 1명이었다. 교사의 교육경력은 5년미만이 10명, 5~10년 4명, 11~15년 2명, 21년

이상이 1명이었다.

2) 교사가 지각한 家政科教育 내용에 대한 남학생의 배울필요의 정도

전체응답자의 69.6%가 가정과교육 내용 전 부분에 대하여 남학생이 배울필요가 있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높은 응답을 보인 교과내용은 건강과 식생활(100%), 청소년기의 영양(100%), 가정생활과 기술(88.2%), 가족과 가족생활(88.2%), 식품과 조리(82.4%)순이었고, 주거위생과 설비(76.5%), 의복건사하기(76.5%), 섬유와 옷감(76.5%), 음식만들기(64.7%)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박<sup>20)</sup>의 연구결과 가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울 필요가 높은 문항으로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53.



3%),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53.3%), 하루식품구성(44.1%)에 관한 내용이 더 첨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들이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청소년기 영양의 특징에 대하여 배울필요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것은 가정과교육 내용 중에서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3) 교사가 지각한 현재 가정과 교과 내용외에 첨가해야 할 내용

교사의 과반수가 첨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성교육, 아동발달교육은 특히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고(100%), 세계·세탁과 관련된다는 오염 및 책임(94.1%), 부엌의 사용법, 자녀교육, 예의, 가정용 전기기기의 선택방법등도 모두 높은 비율(88.2%)을 보였다. 또 가족간의 인간관계(82.4%), 취미와 진로, 건강과 스트레스(76.5%), 조리용구의 사용·보관·개량법, 아침의 중요성, 식생활 개선방법, 자원의 적절한 사용법과 폐기물처리(70.6%), 생활의 계획과 관리(64.7%), 식생활 관련직업(58.8%), 노인·어린이·환자들에 맞는 음식선택법(52.9%) 순이었다.

박<sup>20)</sup>의 연구결과 가정과 교사들이 가정과 교육내용에 첨가를 요하는 학습내용은 컴퓨터의 이용, 성교육, 예절교육, 직업과 나의 진로순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조사하지 않은 컴퓨터의 이용을 제외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4) 교사가 지각한 가정과 교육내용이 남학생의 실생활에의 도움정도

가정과교육 내용 전부분에 대하여 남학생의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67.7%)고 지각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영양(94.1%), 건강과 식생활(88.2%), 가족과 가족생활(88.2%), 식품과 위생(82.4%), 의복건사하기(82.4%), 가정생활과 기술(76.5%), 식품과 조리(76.5%), 주거위생과 설비(76.5%), 식사계획(70.6%), 섬유와 옷감(70.6%)등은 매우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 V. 結論 및 提言

### 1. 結論

家政教科를 이수한 남학생들이 가사노동 수행능

력과 태도에서 家政教科를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들과 다를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家政教科를 이수하였거나 이수하지 않은 전체 남학생들에 대하여 家政教科의 배울 필요성, 家政教科 내용에 첨가하고 싶은 내용을 알아보고 家政教科를 이수한 남학생에게는 家政教科의 실생활의 도움정도를 알아보았으며 家政教科를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차이와 가사노동 수행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교사들이 보는 남학생들의 家政教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학생의 家政教科에 대한 배울필요의 정도와 첨가하고 싶은 내용

대부분의 家政教科 내용에 대해 배울필요를 느끼고 있었다(49.7%), 남학생의 과반수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家政科教育 내용을 보면 건강과 식생활, 청소년기의 영양, 가족과 가족생활, 식품과 위생, 주거위생과 설비, 가정생활과 기술, 옷차림, 음식만들기이었다.

남학생의 과반수가 첨가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보면, 취미와 진로, 성교육, 예의, 자원의 적절한 사용법과 폐기물 처리, 건강과 스트레스, 노인·어린이·환자들에 맞는 음식의 선택법, 부엌의 사용법, 아침식사의 중요성, 가족과 관련된다는 직업이었다.

(2) 家政教科를 이수한 남학생의 家政科教育의 실생활 도움 정도

家政教科 이수집단의 실생활도움 정도에서는 가정교과 내용의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내용은 청소년기의 영양, 건강과 식생활, 가족과 가족생활, 식품과 위생, 옷차림, 음식만들기, 주거위생과 설비, 주거환경의 미화, 가정생활과 기술, 식품과 조리이었다. 단원별 실생활도움의 정도는 식생활, 가정생활과 자원, 주생활, 의생활순이었다.

(3) 家政教科 이수·비이수학생의 가사노동 수행능력 및 태도

家政教科 모든 내용에서 家政教科 이수 학생집단이 비이수 학생집단 보다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家政教科 비이수 학생집단이 家政教科 이수 학생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을 아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家政教科 이수학생 집단은 비이수 학생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을 여

자만이 해야된다는 관념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교사의 家政教科에 대한 인식

家政教科 내용전반에 대해 배울 필요를 지각하였다(69.6%). 특히, 건강과 식생활, 청소년기의 영양에 대해서는 100%의 배울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家政教科 내용전반에 대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67.7%), 청소년기영양, 가족과 가족생활, 건강과 식생활, 식품과 위생, 의복견사하기등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가정교과 내용외에 첨가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은 응답을 하였는데 특히, 성교육, 아동발달교육에 대해서는 높은 응답을 하였다.

## 2. 提言

본 연구를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家政教科 이수집단이 家政教科 모든 내용에 대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가사노동 수행능력 및 태도에서도 家政科教育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에 남녀의 현행헌법과 교육법의 취지인 평등주의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 필수로 중학생에게 家政教科를 이수시키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고등학생에게도 필수과목으로 확대시킴이 바람직하다.

둘째, 조사대상 남학생들이 가정교과가 배울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가정교과 내용에 많은 내용을 첨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그러므로 실습분야의 家政科教育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家政科教育이 실시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이영숙,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아동의 지각 연구”, 군산대학 논문집 제3집, 군산대학, 1982, p. 722
- 2) 고영복, “한국 가족문화의 변용과정”, 아세아 연구, 제10권 제2호, 1976, p. 335.
- 3) 文淑才,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3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0a, p. 81.

- 4)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진명출판사, 1976, p.308.
- 5) 李貞德, “家政科 教育의 새로운 方向과 그 課題”,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76. p.157
- 6) 가정과 교육학회지
- 7) 정재화, “고등학교 가정과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 104~114.
- 8) 조영일,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연구”, 삼육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77, pp. 181~184
- 9) 차용은,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pp. 42~43.
- 10) 박채옥, 이남기, 김행자,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실제와 교사의 가정 및 개인생활의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1980, pp. 47~63.
- 11) 정숙희, “가정학의 방향에 대한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 32~35.
- 12) 김명란, “남자고등학교의 가정관리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 59~63.
- 13) 신현자, “家政學習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54
- 14) 이인희, 이옥임,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1991, p. 11
- 15) 南相瑀, 安淑子,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4), 1987, p. 43.
- 16) 宋木侃, “男女必修の家政科教育について”, 家政科教育, 49(7), 1975, p. 42.
- 17) 주정숙, “가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논문집(14), 공주대학교, 1976, pp. 288~290.
- 18) 鄭榮錦, “家庭生産의 가치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4), 1987. p. 325
- 19) 奥村美代子, “家事勞動と家政科教育”, 家政科教育, 61(11): 21, 1987

- 20) 박인애,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21) 김영, “중등학교 가정과교육의 남녀공통 이수를 위한 방향모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2) 성숙현, “남녀중학생의 가정관리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3) 윤인경, 박선영, “중학교가정과 교육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Vol. 12, No. 1, 1991, pp. 91~99.
- 24)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기술·가정 1. 1989.
- 25)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기술·가정 2. 1990.
- 26) 이승희, “가정학교육의 교과내용 및 남녀공통이수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55~57.
- 27) 고현숙, “가정과 교육에 대한 여고생의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